

기고

| 글. 이승석_ Lee, Seung-Seok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4 미국건축사협회 (AIA) 전국대회 참관기

A participation report at 2014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AIA) National Convention

헬렌 드라일링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회장은 초대의 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

“최근 들어, 지난 십수 년 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건축과 건설 분야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시카고 컨벤션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과연 변화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중심이며 가장 위대한 도시, 세계적 수준의 대도시이며 근대건축이 자라난 시카고에서 이번 컨벤션이 열리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랜 경기침체 이후 아직 그 여파가 사라지지 않은 세상은 이제 막 변화의 몸짓을 시작하려 하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회복이 아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절대로 오지 않을 신기루 일 뿐, 우리는 그 회복을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을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New Normal’이라는 단어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Design with Purpose’의 의미를 뒷받침하며 행사기간 동안 가장 자주 언급되었다. 이번 슬로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지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전문적인 성과물이 새로운 수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의 기초 연사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 그리고 변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어 참가자의 관심과 흥미를 배가하였다.

<주요 공식 일정>

기간 : 2014. 6. 25(수) ~ 2014. 6. 28(토)
장소 : 일리노이, 시카고 McCormic Place
참가자 : 강승우, 이승석 위원(이상 국제위원회 위원), 이각표(건축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임송용(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송영규(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류춘수(이공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전	오후	저녁
6/25		AIA 컨벤션 등록 (VIP 라운지)	VIP환영파티
6/26	프리젠테이션(개회)	2014 AIA EXPO	AIA 국제위원회 리셉션
6/27	프리젠테이션 해외단체장 포럼	해외단체장 오찬	수여식
6/28	건축탐방	프리젠테이션 (폐회)	리셉션 수여식 만찬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시카고 시장인 램 엠마누엘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AIA AWARD는 최고의 영예인 Gold medal을 비롯하여 Membership honor, Institute Honor, Collaborative&Professional Achievement, Cosponsored Programs, Knowledge Community Programs 부분으로 나뉘어 20여 개의 수상자와 수상작 등이 결정

된다. 모든 수상내용은 AIA 홈페이지와 정기 간행물에 게재하며, 프리젠테이션 무대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수상을 진행하였다.

- Gold medal : Julia Morgan, FAIA
- Topaz Medal : Harrison Fraker, Assoc. AIA
- Edward C. Kemper Award : Fredric Bell, FAIA
- Whitney M. Young Award : Ivenue Love-Stanley, FAIA
- Twenty-five Year Award :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METRO
- Architecture Firm Award : Eskew+Dumez+Ripple



이번 해의 AIA Gold medal을 수상자는 Julia Morgan로, 작고한 그녀를 대신하여 딸이 무대에 올라 와서 수상하였다.

기조연설자

1) Jinnie Gang, FAIA / 시카고 소재 건축사사무소 Studio Gang 운영

- 시카고 다운타운에 초고층 주상복합인 Aqua Tower를 디자인하고 여러 건축상을 수상.
- 미시간 호수 경비행기 공항의 재개발 프로젝트 진행 초기부터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도시의 재생과 복원력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함.



2) Theaster Gates / Rebuild Foundation 운영자, 시카고 대학 Arts+Public Life 프로젝트 디렉터

-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공간 설치미술에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동함.
- 전통적으로 흑인 빈민층의 집단거주지역인 시카고 남부 다운타운의 재생화작업(Rebuild Project) 사례를 보여주고, 열악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결국엔 도시 전체의 생명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



3) Ed Mazria, FAIA / 뉴멕시코 주립대·오레곤 주립대 연구교수

- 건축사이자 저술가, 교육자
-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 건축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하고 향후 20년 안에 주거 및 상업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제로 건물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여줌.



4) Tony Hsieh / Las Vegas Downtown Project 디렉터

- 라스베가스에 본사를 둔 인터넷쇼핑몰 zappos.com의 CEO로서 지역경제에서 지역건설 중심으로 탈바꿈 하고자 하는 과정을 이야기함. 라스베가스의 스트립 지역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운타운 지역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Delivering Happiness'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능 있는 지역주민들과 도시재건 프로젝트를 잇따라 실행하면서 건축과 문화, 그리고 도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면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두의 삶이 윤택해 진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이번 컨벤션의 주제인 Design with purpose를 실례로 증명하고 있다.



메인 프리젠테이션

3일간 매일 진행된 프리젠테이션은 행사의 시작과 끝을 알림과 동시에 중요한 상을 수여하고 수상자가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가 된다. 협회장인 Helene은 매일 프리젠테이션을 이끌며 사회자의 역할을 했다. 메인 프리젠테이션의 무대는 영상을 비추는 두 개의 화면이 전면에 배치되어 진행에 따른 정보를 문자와 이미지로, 때로는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세 차례의 프리젠테이션 도입부에는 인터뷰 영상을 재생하였는데, 「세 가지 질문: 1. 건축이란 무엇입니까 2. 건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까, 3. 건축사에게서 들은 조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건축분야 종사자 혹은 일반인들의 대답을 편집한 것으로, 건축인으로서 일반인들에게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VIP라운지에서 헬렌 드러일링 미국건축사협회장과 기념사진

전시

3일 동안 열리는 엑스포는 국내의 건축박람회와 비슷했다. 건축자재,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는 물론 실무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시방서(master spec) 관련 및 설계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부스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행사기간 동안 상주하며 저마다의 홍보에 열을 올렸다. 올해 전시는 규모나 질적 측면에서 모두 미국 경제의 활기가 느껴질 정도로 작년 전시 대비 거의 두 배정도의 면적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건자재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어 작금의 뜨거운 관심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래가치를 읽을 수 있었다.



AIA Expo 전시장 전경

AIA 타운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입장이 다른 여러 건축사들의 고충을 듣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원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두었다. 신진건축사를 위한 부스는 사무실 운영 및 세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타 분야로 전향을 고려하는 건축사를 위한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있었다. 또한 '아키PAC'이라는 정치활동을 하는 로비스트 그룹이 단독의 부스를 마련하고 활동영역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 그룹에는 건축을 전공한 인력이 아닌 정부부처 근무경력을 가진 행정가 인력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건축관련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였다.

건축탐방

해마다 새로운 도시에서 열리는 AIA 건축사대회는 개최도시의 건축탐방을 기획하고 다양한 여정을 개발하여 외국에서 온 VIP를 비롯하여 타 도시에서 온 참가자들이 대회기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개최지인 시카고는 근대건축의 태동을 보여주는 다수의 유명 건축물이 있어 여러 코스의 건축탐방을 운영하였다. 이각표 조직위원장을 비롯, 임송용 회장과 송영규 회장은 시카고리버 건축탐방에 직접 참여하였다.



행사 마지막 날 회장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마치며

1867년 첫 번째 대회를 치른 이후 약 150년이 지난 미국건축사대회는 그 역사만큼이나 내실과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다양한 AIA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건축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자리이며, 건축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컨벤션 기간 내내 벌어지는 다양한 강의 및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계속교육의 크레딧을 쌓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건축인들의 화합의 장으로써 잠재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였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컨보케이션 파티(Convocation Party)는 올해의 fellowship 명칭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호명되며 서로를 축하해 주는 자리로, 회원들 간의 명예를 서로 복돋아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건축사대회가 조직적인 행사이고 다양한 만남과 이벤트로 건축사 간의 교류를 증진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미국건축사대회를 다시 한 번 곱씹게 만드는 것은, 회원들을 리드하고 회원들과 공감하며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서의 건축사의 위상과 생각을 공유하게 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변화하는 여러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인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방안을 강구하려는 의지는 건축사를 사회에 끌려가는 집단이 아닌 선도하는 집단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특히 마지막 키노트 스피커인 Tony Hsieh의 상상적인 도발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문화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배경이 다른 건축사제도를 가진 우리가, 비슷한 행사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배울 점도

물론 많다. 하지만 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문화에 맞게 변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형식과 모양은 다르지만 건축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이고 타국과의 교류를 증진하며, 국내외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훌륭한 문화로 건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차기 AIA 회장인 Elizabeth(왼쪽에서 두 번째)와 환담 중